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nd Communities through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이 용 재(Yong-Jae Lee)**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III.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
| II.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현황 | 1. 독서운동의 활성화 |
| 1. 의미 | 2.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 2. 현황 | 3. 민-관 협력 모델 정립 |
| | IV. 나오며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현황을 조망한 뒤,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을 첫째, 독서운동의 활성화, 둘째,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셋째, 민관협력모델 정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북미에서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효과적인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여건과 한계를 점검하였으며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 협력, 도서관망,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원북원부산운동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llaboration among public libraries and communities through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This study introduced the meaning and trend of 'One Book, One City' program on the world. And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ideas for the collaboration among public libraries and communities making use of this reading campaign: activation of reading campaign, building library network, establishing partnership model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Keywords: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Community Collaboration, Library Network, Public Libraries, Small Libraries, One Book One Busan

* 이 논문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2009. 6. 1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yj5384@pusan.ac.kr)

• 접수일: 2009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9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9월 21일

I. 들어가며

올해는 광복 64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에 태어난 해방둥이가 이순(耳順)의 나이를 훌쩍 넘겼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의 질곡을 겪었고, 가난과 저개발의 터널을 벗어나 여러 선진국과 어깨를 겨누는 문화대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다.

도서관 분야도 크게 성장하였다. 역사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한제국 시기 우리의 선각자들이 근대적 의미의 국립도서관 ‘대한도서관(大韓圖書館)’과 사립도서관 ‘대동서관(大同書觀)’을 설립한 이후 100여년이 지났다.¹⁾ 그 동안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박봉석(朴奉石)²⁾을 비롯한 개척자들이 도서관의 기초를 놓은 이후, 현재까지 1만 2천 개가 넘는 도서관을 설립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대중의 대학(people’s college)’으로 지역사회의 독서·교육·문화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 내 여러 조직과 유대를 맺고 협력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집중하여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이유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지역사회의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운동이고, 미국 시애틀에서 1998년에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 여러 도시로 확산되면서 전개되었고 각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에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어온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현황을 주요 문헌과 사이트를 검토하여 정리하였고,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첫째, 독서운동의 활성화, 둘째, 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 셋째, 민관협력 모델의 정립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도서관선진국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서관과 사서가 노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지역사회 및 공공도서관의 여건을 감안한 협력 활성화 전략을 다루었다. 특히,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개념, 특징, 역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자세히 조명하고, 국내의 공공도서관 실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아가 국내에서 지역사회에 파고 들 수 있는 풀뿌리 독서운동으로서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1) 백린, 한국도서관사연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143-149; 김세익, 도서-인쇄-도서관사(서울 : 종로서적, 1982), pp.218-222.

2) 이용재, “민족의 정신과 기록을 수호하고 도서관을 개척한 영웅, 박봉석 선생,” 도서관계, 제142호(2006. 5), pp.21-23.

3) 2007년 12월 31일 현재 국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4개, 공공도서관 600개, 대학도서관 528개, 학교도서관 10,262개, 전문도서관 619개 이상 총 12,013개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 편, 2008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p.395.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지난 5년 간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각종 공적·사적 모임 참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대상 홍보 활동 전개, 지역사회 내 각종 주체와 접촉, 사서 및 교사 등과의 ‘독서토론포럼자료(discussion toolbox)’ 제작, 작가초청 독서토론회 및 낭독회 개최 등의 경험을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전개하는 국내 여러 도시 중에서 기획 및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파고드는 데 성공한 사례를 일부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 ‘한 책, 한 도시’ 전개과정에서의 애로와 한계에 대해서도 보고된 일부 사례를 다루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국내의 여러 도시에서 지난 6년간 전개된 ‘한 책, 한 도시’ 운동이, 단지 이벤트에 그치는 독서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상화된 ‘풀뿌리 독서운동(Grass Roots Reading Campaign)’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의미와 현황

1. 의미

‘한 책, 한 도시’ 운동(이하 ‘한 책’ 운동)은 “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개하는 독서운동”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1998년 처음 시작된 ‘한 책’ 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가장 두드러지는 독서운동의 하나이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혁(innov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운동의 아이디어는 공공도서관이 전자정보와 영상매체에 탐닉하는 대중에게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노력은 이전까지 지역사회에 파고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사명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

‘한 책’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이 운동은 인종 간의 갈등을 문학작품에 대한 토론으로 승화시켜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 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한 시애틀 공공도서관 사서 낸시 펄(Nancy Pearl)은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인종적 배경, 경제적 수준, 연령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기회는 거의 없다. ‘한 책’ 프로젝트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⁵⁾라고 말한다.

‘한 책’ 운동의 실천 매뉴얼에 해당하는 미국도서관협회 공공프로그램사무국(ALA Public Programs

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2004.9), p.46.

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Programs Office,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2003, p.4. [cited 2009, 8, 20].

Office) 지침에 따르면, ‘한 책’ 운동의 전체 과정은 “목표의 설정 - 일정의 설정 - 파트너의 확보 - 재정지원 파트너의 확보 - 예산 편성 - ‘한 책’ 선정 - 작가의 수락 - 프로그램 파트너의 확보 -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독서토론포럼자료의 작성 - 마케팅과 홍보 - 프로그램 일정 수행 - 행사의 기록과 일정조정 - 평가 - 종료”의 단계를 거친다.⁶⁾

2. 현황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개하는 ‘한 책’ 운동은 각 지역 사회에서 성공리에 추진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1998년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만약 온 시애틀 시민이 같은 책을 함께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이름의 독서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200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개된 독서캠페인 ‘한 책, 하나의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로 인하여 이 운동은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⁷⁾

캐나다의 경우 전국적 차원에서 ‘한 책’을 함께 읽는 독서캠페인, ‘캐나다가 읽는다(Canada Reads)’를 2002년부터 캐나다 라디오 방송국 CBC Radio의 주관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여러 행사에서 도서관이 행사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주최자인 방송국과 그 자체 프로그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책을 읽어주는 도서 프로그램(CBC Radio’s book-program)에서 주요 지역 방송을 통하여 모든 캐나다인이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그대로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다섯 권의 책을 읽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회·예술·문화계 유명 인사들로 구성된 패널 다섯 사람이 각자의 추천도서를 옹호하며 활발한 토론을 벌인 후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한 책’을 최종 선정한다.⁸⁾ 한편, 캐나다에서도 앨버타(Alberta), 밴쿠버(Vancouver), 옐로우나이프(Yellowknife), 워털루(Waterloo) 등에서는 ‘한 책’ 운동을 도시와 지역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브리즈번(Brisbane), 영국의 브리스틀(Bristol)과 스티브니지(Stevenage) 등에서도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⁹⁾

한국의 경우 2003년에 서산에서 처음 시작¹⁰⁾한 이후 2009년 현재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

6) 상거서.

7)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센터의 ‘한 책 운동(One Book Reading Promotion)’ 웹사이트에는 2003년 5월 미국 38개 주에서 9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004년 5월에는 49개주, 239개 프로젝트, 2005년 5월에는 316개 프로젝트, 2007년 1월에는 미국 50개주 전체에서 모두 400여개 프로젝트가 등록되었다.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7. 3), p.7.

8) 황은주, 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p.38.

9) 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ome page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index.php>> [cited 2009. 8. 17].

청주, 포항, 여수, 서귀포, 대전, 김해 등 여러 도시에서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한 책’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도시와 지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한 책’ 운동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독서운동이 지역사회에서도 정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1. 독서운동의 활성화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으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독서운동(reading campaign)’의 활성화이다. ‘도서관운동(library movement)’은 지역 내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운동가와 지역인의 의지를 모으고 관계 당국이나 언론에 의사를 표출하고 모금을 하는 것과 같은 ‘강성(強性)’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서운동’은 사람들이 서로 독서를 권장하고 책읽기를 통하여 대화하고 토론하며, 일상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독서 및 토론의 장소인 도서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연성(軟性)’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부산에서 지난 5년간 ‘한 책’ 운동인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에 원북원부산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연구자는 이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과 토론을 이끌고 ‘독서토론도움자료¹¹⁾’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는 등 ‘한 책’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지난 수년간 창원, 순천, 서울, 대구, 부천 등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는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양상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는 독서운동이 사람들 사이에서 책을 매개로 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
- 10)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서산시 ‘한 책’ 운동은 한국도서관협회가 당시 행정자치부의 2003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한국도서관협회·서산시립도서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 서산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2003.12.15).
- 11) ‘독서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선정된 ‘한 책’을 읽고 토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사서, 관련 전문가, 독서운동가 등이 만들어 제공하는 작은 책자이다. 국내외에서 쓰이는 다른 용어로는 ‘Discussion Guidebook’, ‘Discussion Guides’, ‘Discussion Pamphlet’, ‘Handbook’, ‘Workbook’, ‘독서토론 워크북’ 등이 있다. ‘한 책’ 운동의 대표적 도시인 미국 시애틀, 시카고 등에서는 이 운동이 시작될 때 ‘한 책’을 읽은 후 진행되는 토론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강조한 여러 가지 안내를 담은 도구상자라는 개념을 담은 ‘Discussion Toolbox’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기에, 이 글에서도 이 용어를 쓴다. 독서토론도움자료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재·황은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성과 실천방안 연구 : 독서토론도움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63권, 제2호(2008, 12), pp.48-70을 참고하십시오.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결핍감을 더욱 느끼게 하여 ‘작은도서관’ 운동(Small Library Movement)을 촉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작은도서관’이란 “법에서 정한 최소규모 이상의 시설, 직원, 자료를 갖추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비영리로 지역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생활친화적인 독서·교육·문화공간”을 말한다.¹²⁾

그러므로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참신한 기획력과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파급되고 정착될 수 있는 독서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책’ 운동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지역사회 독서활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독서운동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북미 전역에서 성공리에 전개되고 있는 이 운동은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이 기획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였다.¹³⁾ 한 도시에서 한 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즐긴다고 하는 ‘한 책’ 운동에서의 핵심은 사서들의 기획력과 도서관 네트워크라는 인프라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한 책’ 운동의 성공이 반드시 국내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역사회에서의 국내 공공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이 북미의 그것과는 다르다. 또한 국내 도서관들이 많은 수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서들의 참신한 기획력이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가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미국도서관협회가 제공하는 “(미국) 도서관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들”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미국 도서관의 역할은 맥도날드, FedEx, 아마존, 극장, 경기장 등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능가함을 알 수 있다.¹⁴⁾

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위상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구·군 단위로 1~2개관 정도가 설립되어 있

- 12) 최준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p.27.
- 13) ‘한 책’ 운동에서의 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와 자료에서 보고되었지만, 최근의 국내의 연구로는 Liza Palmer & Peterson, Elizabeth, “Grass Roots Collaboration : Growing Community with the ‘One Book, One Community’ Program,”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24, No.3(2007), pp.51-65;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11-333 등이 있다.
- 14) 원문을 번역하면, ① 미국에는 맥도날드보다 공공도서관이 더 많다. ② 미국 도서관에서 매일 대출되는 자료는 FedEx의 하루 물류량 보다 많다(도서관 540만 vs FedEx 530만). ③ 미국 공공도서관 회원은 아마존 회원의 거의 5대 1 수준이다. ④ 미국인들의 도서관 출입은 극장가는 횟수의 두 배가 넘는다. ⑤ 미국인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쓰는 돈의 세 배를 잔 스낵에 쓴다. ⑥ 미국 도서관은 세계 각국의 책들을 160억 권 정도 소장하고 있다. ⑦ 사람들의 도서관 방문 횟수는 매년 11억 이상을 기록하는 데 비해, 한 해 판매되는 스포츠 티켓은 2억 4백만 정도이다. ⑧ 학생들은 한 학년 동안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를 거의 15억 번 방문한다. ⑨ 미국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서관 자료에 지출하는 돈의 7배를 비디오게임에 쓴다. ⑩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매년 9천 7백만 건의 참고질의에 응답한다. 이 중에서 ⑤번과 ⑨번은 미국인의 삶 중에 우려되는 부분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나머지 사실들은 미국 도서관과 사서들의 지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ome page, <<http://www.ala.org/ala/newspresscenter/news/pr2004/april2004/nlwtop10.cfm>> [cited 2009, 8, 19].

어, 모든 지역 주민이 도서관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도서관 혜택'을 보기에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영석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는 영국의 공공도서관보다 5.6배 더 많다. 다시 말해, 한 개의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인구가 영국보다 5.6배 더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과 주민들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말이 된다.¹⁵⁾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선진국에 비해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이미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사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파고들면서 지역주민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폴뿌리 독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들이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이루고 주민들에게 친밀한 일상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의 경우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의 대표적 공공도서관인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의 경우이다. 이 도서관은 전문 분야로 특화된 4개의 연구도서관(① Stephen A. Schwarzman Building, ②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③ 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④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과 지역사회에 밀착한 87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이 도서관의 2008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도서관들의 운영비가 약 1억6천만 달러이고 분관들의 운영비가 약 1억7천5백만 달러로 총 운영비가 3억3천만 달러 이상이다.¹⁷⁾ 세계 국립도서관들의 수준에 비하여도 뒤지지 않는 이 도서관은 놀랍게도 비영리 민간단체(NPO)가 운영한다. 또한 87개 분관들은 의료건강정보, 구직·전직·커리어개발 정보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일에 관련된 정선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숙제, 독서회, 교사의 수업 계획 등을 지원하고 이민자 대상 무료 영어교실 운영, 이민자의 모국과 미국 간 무역업무 지원, 행정 정보의 창구 및 시민의 정치참여 지원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¹⁸⁾

이처럼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중앙관을 중심으로 분관들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도서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작은 공공도서관'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구축된 전체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인구 25,000명

15) 김영석, "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09. 6), p.236.

16) The New York Public Library Home page, <<http://www.nypl.org/>> [cited 2009. 8. 20].

17)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NNUAL REPORT 2008*. <<http://www.nypl.org/pr/objects/pdf/2008annualreport.pdf>> [cited 2009. 8. 20]. 이러한 운영비를 이 보고서가 나온 무렵(2009년 1월)의 환율(1달러=약1,300원)로 환산하면, 연구도서관들의 운영비가 약 2,080억 원, 분관들의 운영비가 약 2,275억 원이 된다.

18) 스가야 아키코,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이진영·이기숙 공역(서울 : 지식여행, 2004), pp.17-23.

미만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들은 ‘문고’나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Public Library’로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작은도서관들이 분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도시의 경우 ‘대표관-지역중앙관-지역분관-이동도서관문고’, 농촌·마을의 경우 ‘지역중앙관-이동도서관·문고’의 형태로 운영된다.¹⁹⁾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속한 분관도서관 형태가 아닐 경우, 지역의 주요 도서관 또는 도서관 시스템과의 연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운영능력 및 재정요소를 기준으로 정한 기본적 시설 및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목록공유나 상호대차와 같은 협력관계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⁰⁾

영국의 경우에도 도서관 네트워크가 잘 발전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공공도서관·박물관 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을 제정하여, 지방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한 명의 관장 하에 운영되는 완전한 분관체제를 이루고 있다. 즉, 시·군·구 각 지방자치정부 관할 지역에는 1개의 중앙도서관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분관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있다. 분관들은 다시 규모가 다소 큰 ‘지역도서관(District Library)’과 이 보다 작은 ‘동네도서관(Neighbourhood Library)’으로 나뉜다. 지역도서관은 동네도서관에 비해 자료와 사서 수가 더 많고 개관시간도 더 길다.²¹⁾ 영국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주택가, 상가, 공공건물 등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분관을 운영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도서관이 일상생활 공간으로 기능하며,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도 매우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서관의 친구들(Friends of the Library)’이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주민들,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경우 그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즉, 학생, 교사 혹은 교수, 학부모, 동문, 은퇴교수들, 그리고 국가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도서관에 각종 행사가 열릴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도서관을 물질적 혹은 경제적으로 돕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내용을 홍보한다. 또한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서관을 대신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도서관 정책 결정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도서관 경영자나 사서들은 이들과 수시로 만나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들’이 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한다.²²⁾ 영국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는 지난 수십 년간 ‘도서관의 친구들’이 한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1970년대 초부터 ‘도서관의 친구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19) 이용재 외,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07. 11. 7), p.21.

20) 김세훈 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06. 11. 4), p.95.

21) 김영석, 전개논문, pp.235-237.

22) 김영석,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고찰 :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5. 3), p.281.

다방면에 걸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관이 폐관 위기에 처하였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폐관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도서관의 친구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이 노력의 결과로 많은 도서관을 폐관으로부터 지켜냈다. 2009년 현재 영국에는 약 200여개의 '(공공)도서관의 친구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는 지역연합회 그리고 전국에는 전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²³⁾

또한 영국에서 펼쳐지는 '한 책' 운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한 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브리스틀의 경우, 2003년부터 'The Great Reading Adventure'라는 이름으로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브리스틀의 시민들은 같은 책을 읽도록 권장된다. 선정된 책은 브리스틀 출신 작가가 쓴 것이나 브리스틀 시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다룬 것이다.²⁴⁾ 이러한 책읽기 프로젝트에 도서관을 비롯한, 시의회, 기업, 복권기금, 대학 등이 참여하고 후원하고 있다.²⁵⁾ 스티브니지의 경우, 시장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작가, 도서관, 박물관, 대학, 신문사 등이 협력하여 수년째 '한 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의 '한 책' 선정 방식은 다섯 권의 후보 중에 한 권을 택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²⁶⁾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이다. 일본은 지역주민에게 파고드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밑에서부터 위로,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즉, 이동도서관(자동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분관)에서 시작하여 이후에 중앙관이 들어서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분관 설치 이후 중앙관을 설립하는 방식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분관마다 전문사서를 배치하여 분관이 부딪치기 쉬운 장서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 공공도서관 네트워크가 이렇게 정착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도쿄 중심지에서 60km 떨어진 히노시(日野市)의 시립도서관(이하 히노도서관)은 1965년 6월에 「히노시립도서관 설치 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 이동도서관 1대(정차장 37개)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히노도서관은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목표로 개설되었는데, 이는 당시 아리아마 시장과 마네카와 츠네오 초대관장이 저술한 「중소도시의 도서관 운영(약칭 ‘중소리포트’)」에서 제시한 “도서관의 자료는 시민들의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서를 대출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었다. 그 후 도시 곳곳에 어린이도서관, 복지센터 도서관,

23) 김영석, 전개논문, pp.246-247.

24) Bristol Story <<http://www.bristolreads.com/index.html>> [cited 2009. 9. 7].

25) The Bristol Story : The Great Reading Adventure 2008 Evaluation Report, <http://www.bristolreads.com/downloads/evaluation_report/bristol_story_evaluation_report.pdf> [cited 2009. 9. 7].

26) One Book for Stevenage, <<http://www.stevenage.gov.uk/townandcommunity/onebookforstevenage>> [cited 2009. 9. 7].

사회교육센터 도서관 등이 하나씩 개관되어 점차 도서관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1973년에 드디어 중앙도서관이 개관되었다.²⁷⁾ 이처럼 히노시의 경우 이동도서관에서 출발하여 분관들을 도시 곳곳에 설치한 이후 중앙도서관을 최종 설립하여 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한 사례이다. 이후 이러한 '중소리포트'의 아이디어는 일본 전역으로 퍼졌으며, 오늘날 일본의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씨앗을 뿌렸다.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개의 지역중심관과 복수의 지역도서관(분관, 분실)·자동차도서관으로 이루어지며 정촌부(町村府)의 경우 단독관(지역중심관) 및 자동차도서관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²⁸⁾

브라질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수가 1985년에 4천개 이상이 되었지만, 도서관들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1990년대 중반 지역밀착형 도서관이 탄생하였다. 즉, 꾸리찌바市(Curitiba)에 시민을 위한 도서관 '지혜의 등대'가 설립된 것이다. '지혜의 등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이 사는 지역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공립학교 근처에 설치되었다. '지혜의 등대'는 2층의 건물과 등대모양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개의 문 중에서 하나는 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 거리로 열려 있다. '지혜의 등대'는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 하지 않고 청소년의 컴퓨터 및 선도시설, 지역의 치안보조 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꾸리찌바시이며, 도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중앙도서관 또는 다른 '지혜의 등대' 도서관과 교환된다.²⁹⁾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못 하였다. 사실상, 선진국에서와 같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즉, 도서관망이 지역사회 전역에 거미줄처럼 구축되고 도서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역주민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도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적 차원의 도서관 네트워크는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만 제시한다.

우선 공공도서관 운영의 이원화(교육청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제가 있다. 이처럼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도서관 사이에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도서관 사이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의 경우, 원북원부산운영위원회(One Book One Busan Committee)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초기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관장 및 사서 위주

27) 이용재 외,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pp.22-25.

28) 김세훈 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p.105.

29) 이용재 외,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p.26.

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사서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구·군 단위로 대규모로 지어져 있고 동·읍·면 단위의 '작은 공공도서관'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이 봉사해야 할 인구수가 매우 많다. 최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따르면,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가 미국 3만2천명, 일본 4만8천명, 영국 1만2천명, 독일 9천명인데, 한국은 8만7천명(2006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다.³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걸어서 15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간 차원에서 문고, 어린이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셋째, 지난 수십 년 간 공공도서관과 민간의 '작은도서관' 사이에 협력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한국 공공도서관 운영과 민간의 '도서관운동'은 따로 존재하여 왔다. 공공도서관은 주로 수협생을 위한 '거대한 독서실' 기능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편 민간에서는 1960~70년대의 마을문고 운동, 1980~90년대의 도서원, 주민독서실, 공·사립 문고, 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설립 운동을 전개³¹⁾ 하였으나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없이 고군분투하며 도서관운동을 전개하였다. 실제로 연구자도 '한 책'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공도서관과 민간의 '작은도서관'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모저모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선진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³²⁾ 다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한 책' 운동과 같은 독서운동은 한국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연계되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3. 민-관 협력 모델 정립

한국의 경우, 도서관과 민간의 협력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도서관 건립 및 독서운동을 관(官)이 주도하거나 시행하는 편이고, 민간(民間)은 수동적으로 시혜를 받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수십 년 간의 '마을문고' 운동(Village Mini-Library

30)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서울 : 대한인쇄사, 2008), p.15.

31) Yong-jae Lee & Jae-soon Jo, "The modern history of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in Korea,"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20-24 August 2006, Seoul, Korea) <http://archive.ifla.org/IV/ifla72/papers/119-Lee_Jo-en.pdf> [cited 2009. 8. 20]: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p.57-230.

32) 연구자는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과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선진적 도서관 네트워크 모형과 독서·문화프로그램 메뉴얼을 담았다. 이용재 외,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07. 11. 7).

Movement)과 ‘작은도서관’ 운동 등에서 보듯, 민간에서는 도서관운동가 개인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생적이고 회생적으로 주민의 삶과 독서에 밀착된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³³⁾ 이렇게 민간에서 문고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심하며 애를 쓴다.

여기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 도서관 네트워크의 한계를 감안하여, ‘한 책’ 운동을 통한 민-관 협력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 책’ 운동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 기회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북미에서 ‘한 책’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지역의 개인,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One Book, One City’의 발상지 시카고(Chicago)의 경우, 시카고 시장(Richard M. Daley)의 지도력과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도서관마케팅(Library Marketing)’도 작용하였지만 여러 분야에서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졌다. ‘One Book, One Chicago’가 출범한 해인 2001년도 선정도서인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였다. 이에 시카고의 법률가들은 작품 중 ‘탐 로빈슨의 재판장면(Tom Robinson’s trial)’을 재연하여 청중들과 함께 이 책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여러 재단, 기업, 단체 및 개인이 이러한 독서운동을 후원하고 동참하였다.³⁴⁾ 특히 커피전문회사 ‘스타벅스(Starbucks)’의 시카고본부는 매장 60여개소에서 안내지를 배포하고, 5개소에서 독서토론 장소와 다과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문학위원회(The California Council for the Humanities)가 주관하고, 주립도서관과 도서센터가 협력하여 2002년에 『분노의 포도』 읽기(Reading *The Grapes of Wrath*)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물론 대학, 노동단체 및 문화·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고 후원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1,000여개가 넘는 개별 행사가 진행되었다.³⁵⁾

한편, 미국의 사서 Liza Palmer와 Elizabeth Peterson은 2005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톤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이하 UNCW)의 도서관이 주도하여 공공도서관, 전문대학 도서관,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한 책’ 운동을 전개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 사례는 공공도서관 주도는 아니지만,³⁶⁾ 지역사회의 여러 관종의 도서관과 학교 및 민간의 다양한 그룹(소

33) Lee, Yong-jae & Jae-soon Jo, “The modern history of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in Korea”, pp.7-11.

34) 시카고 지역 청과상 체인 ‘Jewel-Osco’와 소비식품회사 ‘Proctor & Gambel’은 \$10,000 정도의 기부금과 함께 상점 내 광고전단, 포스터, 구내방송, 쿠폰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또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이 만든 재단 ‘Michael and Juanita Endowment Fund’는 도시 전역의 도서관들에서 열린 12개의 청소년 독서토론모임 후원으로, 장서표가 붙은 300권의 책을 인근 학교에 기증하였다.

35) 황은주, 전개논문, pp.31-36.

36) 이러한 ‘한 책’ 운동 사례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이 운동에 참여한 공공도서관(New Hanover

수자 그룹, 독서회, 서점, 식당 등)이 상호 협력하여 전개한 ‘한 책’ 운동이다. 이러한 사례를 들여다보면, ‘한 책’ 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UNCW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읽고 쓰는 능력(literacy)’을 향상시키는 것을 UNCW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덜 알려진 지역출신 작가를 ‘한 책’ 운동의 주인공으로 삼은 점이다. 이러한 경우의 장점은 작가가 지역 내 ‘한 책’ 운동의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에 작은 사례금을 받고 기꺼이 참여하여 1년 동안 ‘한 책’ 운동에 동반자의 자세로 임하였다는 것이다.³⁷⁾ 작가는 1990년대 베트남에서의 자신의 삶을 작품에 담았다. ‘한 책’ 위원회에는 사서, 교수 및 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기여를 하였다. 이 운동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느슨한 협력활동을 통하여 ‘한 책’ 운동이 적절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특정 조직이 모든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한 책’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야말로 각종 주체(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대학 도서관, 고등학교) 사이에 상호존중과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한 책’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교수와 교사는 수업에서 ‘한 책’을 다루었고 학생들은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의 관련 프로그램에 초청되었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대학 캠퍼스 경험을 권장하였다.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최대의 고객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도서관마케팅을 전개하고 독서토론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그룹들이 ‘한 책’ 운동에 동참하였다. 예컨대, 서점은 도서 할인판매, 독서클럽 조직, 작가들과의 협력, 이벤트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베트남 시장(market)과 식당은 ‘한 책’을 홍보하고 음식을 제공하였다. 지역신문은 ‘한 책’ 운동에 서평 코너 등 여러 지면을 할애하였다. 지역의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도 홍보 및 프로그램 편성으로 기여하였다. 소수민족 그룹(베트남인)도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³⁸⁾

반면, 현재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한 책’ 운동의 경우, 대체로 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서관 등) 주도로 진행되었다. 여러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서관 및 ‘한 책’ 운영위원회가 ‘한

County Public Library)은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관문(gatekeeper)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즉, 공공도서관은 지역독서클럽의 본부(headquarter), ‘한 책’ 운동의 출범식 장소, 작가와의 만남의 장 등으로 기능하였다.

37) 연구자가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전개한 ‘원북원부산’ 운동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베스트셀러 작가가 선정되었다. 이 경우 작가의 유명세가 ‘한 책’ 운동의 홍보와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물론 있었지만, 작가가 바쁜 나머지 1~2번의 초청강연에 응하는 것에 그쳐, ‘한 책’ 운동의 본질적 취지를 살리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였다. 즉, 한 해 동안 시민들이 ‘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과정에 작가가 동반자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책’ 운동이 동시대 지역내 이슈에 대해 ‘도발적 토론’을 통하여 지역인의 성찰과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향후 ‘한 책’ 운동에서 지역작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조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38) Liza Palmer & Peterson, Elizabeth, “Grass Roots Collaboration : Growing Community with the ‘One Book, One Community’ Program,”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24, No.3(2007), pp.51-65.

책' 운동을 추진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민간의 여러 주체가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한 책' 운동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방송국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에도 아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청주의 '한 책' 운동 「책 읽는 청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주대 교수 윤정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 읽는 청주」는 청주시, 도서관 및 지역사회의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독서, 교육 및 문화 관련 부문의 외부, 예를 들어, 경제계, 법조계, 병원, 극장, 박물관, 미술관, 각종 민간단체, 지역유지와 명사 등이 「책 읽는 청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면서 재정적 지원, 예술적 후원, 물리적 시설 및 편의 제공 등 여러 형태의 협력과 후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일 뿐이다.³⁹⁾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한 책' 운동에 민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고 상임위원회에는 각 분야의 최고책임자(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도서관장, 교장, 시민단체·언론사·문화계 대표, 법조인, 병원장, 기업계 사장 등)가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후원자 역할을 하고, 실무위원회에는 각 분야의 중견 및 일선 종사자(예컨대, 사서, 교사, 시민단체 간사, 기자·프로듀서, 문화 및 연예계 종사자, 자영업자, 회사원, 부녀회장 등)가 참여하여 '한 책' 운동의 전 과정에서 실제적인 기획, '한 책'의 선정, 홍보, 프로그램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한 책'의 작가와 출판사 및 서점은 '한 책' 운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도서 홍보 및 지원, 작가의 강연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공간의 개설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 책' 운동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및 공동 운영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유기적 연결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광복 이후 지금까지 공공도서관과 민간의 '작은도서관'이 별개로 존재하여 왔다. '한 책' 운동은 말 그대로 한 지역사회에서 '한 책'의 책을 정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독서 문화를 진작하고 현대사회 및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성찰을 얻을 수 있기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협력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독서운동이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서로 협의하여 '한 책'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

39)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3), p.77.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 책'의 선정 단계에서의 기획 및 홍보, '한 책' 운동 선포식 이후 홍보 및 독서회 활동 연계 및 공동진행, 독서토론도움자료의 제작 협력 및 온·오프라인 공유,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작가 초청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협력,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독서회들을 연계하여 합동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과 활동은 '한 책' 운동이 가지는 장점, 선진성, 블루오션(Blue Ocean), 가치를 활용하여 그 동안 한국에서 어려웠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이 실현될 수 있는 불씨를 열어줄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한 책' 운동이 홍보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풀뿌리 독서회'가 이루어지고, 공공도서관은 장서의 지원, 독서토론도움자료의 제작·공급, 고급의 도서·문화프로그램 제공 등과 같은 지원활동을 전개한다면, '한 책' 운동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독서와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셋째, 지역에 기반한 도서·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여타 주체들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에서의 '한 책' 운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오래된 문제나 현안(예컨대, 인종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문학작품을 통해 주민들이 '도발적 토론(provocative discussion)'을 펼침으로써 주민사이의 상호이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가 'One Book'으로 선정되어 이 지역에서의 이주민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다룬 사례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대표적 '한 책' 운동이다.

이처럼 지역문화에 밀착한 한국의 '한 책' 운동으로는 순천에서 지역출신 정채봉 작가의 작품 『스무살 어머니』가 선정된 사례, 원주에서 친환경 생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공동체사상을 담은 『좁쌀 한 알』이 선정된 사례와 포항의 경우 해양성을 반영하여 『귀신고래』가 선정된 사례 등이 있다. 연구자가 참여하는 원북원부산운동의 경우, 현재까지는 지역의 문화와 직결되는 책이 선정되지는 않았고 대체로 작품성과 시의성이 있는 베스트셀러가 선정되었다. 앞으로 지역기반 프로그램이 더욱 고려되거나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전부터 부산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자갈치축제, 동래읍성축제, 달맞이고개 철학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연계하여 '한 책' 운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산의 전통적 해양문화, 새로운 영상문화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한 책' 운동에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증진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 시카고(2001년 선정도서 『앵무새 죽이기』)나 한국의 청주(2006년 선정도서 『암록강은 흐른다』)에서처럼, 작가가 칩거, 별세 등의 이유로 초청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⁴⁰⁾

IV. 나오며

이상에서 ‘한 책’ 운동을 통해본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책’ 운동은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연계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독서캠페인이다.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운동의 가치와 장점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시대에서 영상문화 및 디지털매체에 몰입하는 신세대까지도 독서를 문화로 즐기고 느끼게 하여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속적 독서(sustained reading)’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연계하고 공공도서관의 참신한 기획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개된 ‘한 책’ 운동은 각국의 지역사회에서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2003년 이후 국내 여러 도시에서 전개되는 ‘한 책’ 운동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 책’ 운동을 통한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참신한 기획력과 도서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한 책’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전역에서 성공리에 전개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이 국내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해가 갈수록 참여 도시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독서운동의 가치와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에서 도서관과 사서가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북미에서의 도서관 인프라에 비해 인지도와 역할, 영향력 면에서 아직도 열악한 편이기에, 도서관이 참신한 기획력을 발휘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한 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주체간의 상호준중과 느슨한 연대를 통한 독서운동의 확산, ‘독서 토론도움자료’의 제작과 배포, 지역내 다양한 축제 및 문화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한 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경우, ‘한 책’ 운동이 일시적인 독서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상

40)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9권, 제3호(2008. 9), p.264.

적인 독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된 '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도서관선진국들의 사례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각국의 사례에서 취할 수 있는 점들과 국내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관 네트워크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한 책' 운동에서도 '한 책' 운동을 전개하는 도시들 사이에 정보 및 아이디어 교환,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도서관협회가 2003년에 서산시립도서관과 함께 처음으로 '한 책' 운동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각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 도서센터(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가 미국의 각 주(state)에서 전개되는 '한 책' 운동과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의 '한 책' 운동을 아우르는 웹사이트⁴¹⁾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도서관협회의 명의로 우리나라 '한 책' 운동을 아우르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한 책' 운동을 시행하는 주요 도시들의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⁴²⁾

셋째, '한 책' 운동을 통한 민·관 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한 책' 운동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 기회의 증진, '한 책' 운동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및 공동운영, 지역에 기반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여타 주체들의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한 책' 운동의 선정 과정 연구, 지역기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한 책' 토론의 진행 및 평가, 지역사회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적인 연구들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김세익. 도서-인쇄-도서관사. 서울 : 종로서적, 1982.
- 김세훈 외.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국립중앙도서관 연구보고서, 2006. 11. 4).
- 김영석.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고찰 :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5. 3), pp.279-294.
- 김영석. "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09. 6), pp.233-251.

41) 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Home page,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cited 2009. 8. 20].

42) 한국 '한 책, 한 도시' 운동 홈페이지 <<http://www.onebook.or.kr>>. 이 사이트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명의로 개설되었고, 현재 부산의 문화컨설팅회사인(주)코아섬(대표 : 박치홍)이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해 주고 있다.

- 김해시 주민생활지원국. 김해시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 책 읽는 도시 김해(2008. 11.6,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시청각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 대한인쇄사, 2008.
- 백 린. 한국도서관사연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1.
- 서창호. 1993년 이후 한국 독서운동의 전개양상 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08.
- 신남희. 새벗도서관 이야기 : 새벗도서관 발전의 내면적 동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45-66.
- 윤정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7. 6), pp.165-184.
-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63-81.
- 윤정옥.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9. 6), pp.311-333.
- 이수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 ‘부산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 이용재. “부산북스타트운동의 전개방안과 발전 방안 : 국내외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과 관련 하여.” 민족문화연구, 제25집(2005. 4), pp.429-460.
- 이용재.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효과적인 추진방안.” 책 읽는 순천 심포지움(2005. 9. 27,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pp.7-27.
- 이용재. “민족의 정신과 기록을 수호하고 도서관을 개척한 영웅, 박봉석 선생.” 도서관계, 제142호(2006. 5), pp.21-23.
-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6), pp.5-25.
- 이용재. “책읽는 서울, 미래를 여는 동력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2006년도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자료집(2006. 10. 26, 서울 정독도서관 시청각실), pp.3-12.
- 이용재. “‘원북 원부산(One Book One Busan)’독서운동의 역할과 전망.” ‘원북원부산’ 연합독서토론회(2006.12.5,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시청각실), pp.42-56.
- 이용재.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정책 :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의 지평에서.”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 축제 작은도서관 워크숍 자료집(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국립중앙도서관, 2007. 9. 11, 서울 올림픽파크텔).
-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9), pp.247-265.
- 이용재 외.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연구보고서, 2007. 11. 7).
- 이용재·황은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성과 실천방안 연구 : 독서토론포움자료를 중심으로.” 도서관, 제63권, 제2호(2008. 12), pp.48-70.
- 이진우. 작은도서관의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2006.
- 최준화.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 한국도서관협회 편. 2008년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8.
- 홍미선, 김해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스가야 아키코 지음.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이진영·이기숙 공역. 서울 : 지식여행, 2004.
- Boff, Colleen, Robert Schroeder, Carol Letson, and Joy Gambill. “Building uncommon community with a common book : The role of librarians as collaborators and contributors to campus reading programs.” *Research Strategies*, Vol 20(2007), pp.271-283.
- Lee, Yong-jae, and Jae-soon Jo. *The modern history of the library movement and reading campaign in Korea*,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20-24 August 2006, Seoul, Korea).
 <http://www.ifla.org.sg/IV/ifla72/papers/119-Lee_Jo-en.pdf> [cited 2009. 8. 20].
- McCabe, Ronald B.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오지은 역. 서울 : 이체, 2006.
- Palmer, Liza and Elizabeth Peterson. “Grass Roots Collaboration : Growing Community with the ‘One Book, One Community’ Program.”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l.24, No.3 (2007), pp.51-65.
- Robertson, Deborah A. *Cultural Programming for Libraries : Linking Libraries, Communities & Cultur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5.
- Siess, Judith A.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이우정·박수희·김태훈 공역. 서울 : 이체, 2005.